

전기충격기로 장애인 학대 의혹... 인권단체 '수사 강력 촉구'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성구 단기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관련 기자회견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센터장 전기충격기 학대 의혹'과 관련,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유성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상습적인 손찌검에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 장애인 인권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기보호센터 전기충격기 학대 보도"를 접하고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시설에 보내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해당 시설에서 전기충격기의 고통과 시설장에 대한 공포감으로 두려움에 떨었을 장애인 사자들의 모습을 생각 하면 역사가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전기 충격을 가해 발생한 상처와 피해 장애인의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대를 하지도 않았고 본 사람도

없다'고 발뺌하는 뻔뻔한 태도"라며 "피해 장애인이 직접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가 목격자인데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없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은 시설장이 '지지직' 하는 것을 가져와서 위협하고 폭행했다고 한다. 피해 장애인들의 인터뷰를 접하며 우리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치가 떨렸다"며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혼욕과 횡동수장이라는 미명하에 상습적으로 폭행 손찌검, 전기충격기 학대를 당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이어서 "대전시와 유성구는 피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 장애인 지원에 힘써달라"며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이 없도록 체계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위원장 사자들의 모습을 생각 하면 역사가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전기 충격을 가해 발생한 상처와 피해 장애인의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대를 하지도 않았고 본 사람도

없다'고 발뺌하는 뻔뻔한 태도"라며 "피해 장애인이 직접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가 목격자인데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없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은 시설장이 '지지직' 하는 것을 가져와서 위협하고 폭행했다고 한다. 피해 장애인들의 인터뷰를 접하며 우리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치가 떨렸다"며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혼욕과 횡동수장이라는 미명하에 상습적으로 폭행 손찌검, 전기충격기 학대를 당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이어서 "대전시와 유성구는 피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 장애인 지원에 힘써달라"며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이 없도록 체계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위원장 사자들의 모습을 생각 하면 역사가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전기 충격을 가해 발생한 상처와 피해 장애인의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대를 하지도 않았고 본 사람도

이정복기자



대전시 세종사무소 개소

대전시가 12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세종시 갈매로 358)에서 '대전시 세종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대전시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는 서울사무소에 이은 또 하나의 대외협력 전진기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동향 파악, 국비 확보와 관련된 시의 각부처와 연계한 지속적인 선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장현안 홍보 등 대외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사무소에는 점권실과 재정

협력관실, 그리고 세종시 출장 직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공간 등이 마련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이강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임재진 정책기획관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대전시 중앙협력본부 일반현황 및 세종사무소 설치 경과보고, 현판제막식, 사무소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기존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격상시키고, 세종사무소 신설을 통해 대외업무능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며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의 국비확보를 위한 최점점의 지원부서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20억 추가확보

국토부, 상반기 추진실적 및 예산조기집행 선정... 사업 탄력

충남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부단체장 회의에서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조기집행 우수 시도로 선정, 20억원을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도는 당초 광역선정분으로 배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

비 30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20억원을 확보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광역선정분 4곳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인 충남도는 이미 상반기 1곳(예산군 주교지구)을 지정한데 이어 9월말까지 3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일까지 활성화 계획을 접수받아 서면 및 현장평

가를 거쳐 8월말 최종평가를 통해 9월말 도시재생특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앙선정분(중심시가 지형, 공공업제안형)에서도 1곳이 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을 지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 중인 천안·공주·보령·아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10조원의 재원을 5년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앙 공모에는 공주시가 광역공모에는 예산군이 각각 선정돼 국비 170억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BEER

허태정 시장 '혁신도시 관철' 또 여의도 行

계획된 모든 일정 미루고 국회로 발걸음 옮겨

허태정 대전시장이 15일 계획된 모든 일정을 미루고 국회로 발걸음을 옮긴다. 허 시장의 국회 방문은 17로 예정된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현승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시 건설과 대학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등 행정적 손실과 함께 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여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화 채용기관이 확대돼 대전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

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지역적 차별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이해훈, 임종성 의원 등 여러 여야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회기 내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지역 청년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지역 청년들의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혁신도시법 관련 법안의 심의가 열리는 17일에도 국회 국토교통법안소위를 찾아 법안 심의를 지켜보고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문화상 국회의장 국회 조경근로자 격려 방문 문화상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동에서 국회 환경을 위해 일하는 조경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고를 격려했다. 문 의장은 초복을 맞아 조경근로자들과 수박과 떡 등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저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 딱 나가면 어느새 꽃이 바뀌어있고 정비가 되어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가 어렵지만 이곳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싸우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치료사,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자긍심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여러분들은 친구입니다. 고맙고, 사랑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대덕구의회, 제8대 의원 발의 조례안 135건

7월 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제8대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원 후 1년 동안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그 중 34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번 7월 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4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김태성 의원이 2건, 박은희 의원이 2건, 이경수 의원이 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거침없는 입법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의원별로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김태성 의원이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 여건 제공 및 청소년들의 인권 보

장 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지역자율 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은희 의원은 농업인들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경수 의원은 대덕구의회 업

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집 등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위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논의 후 원안 가결한 것으로, 이번 의결된 조례는 앞으로 대덕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법적 근거로 새로이 다가갈 것이다.

김정환기자

정의당 대전 위원장 김윤기

충남 위원장 장진 당선



정의당이 8일부터 12일까지 2019년 정의당 동시직선거를 치른 가운데, 대전시당은 김윤기

<사진> 현대전시당 위원장이 재임에 성공했으며, 부위원장으로 김진욱(청년현 대덕구위원회 부위원장), 서혜숙(여성/현 동구위원회 위원장), 조선기전 진보신당 서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후보가 부위원장에 당선됐다.

김윤기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는 당원들의 믿음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정당다운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원들의 힘을 모으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또한, 공공성, 지속가능성,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전의 미래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 공영제로 나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당도 장진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장 위원장은 505%의 득표율로 49.5%를 얻은 신현용 노동위원장을 1%p 차이로 따돌렸다. 부위원장 장연 이선영 현 충남도의원(비례), 박성필 정의당 천안지역위원장, 이동환 당원 등 세 명이 당선됐다.

장 위원장은 "가급적 올해 안 충남 전 지역 창당을 이뤄내 충남도당의 실력을 키워겠다"며 "내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의 경우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이 12일 정의당 5기 대표로 선출됐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정당을 넘어 집권정당을 시작할 것"이란 포부를 드러냈다.

이정복기자

배재학당, 제20대 이사장에

곽명근 씨 재선임



학교법인 배재학당은 11일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곽명근 이사장을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4년이다.

곽 이사장은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서피에이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2012-2015년 배재학당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6년 3월 제19대 배재학당 이사장으로 선임돼 왕성한 활동을 벌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 토론회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제도 마련 위해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문상필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2층 대회의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최하고 이규희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위원회 광역·기초의원 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대표인 정책 충남도의원교홍복조 대구 달서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경희 경기도의원

과 이경환 서울 관악구의회이 전국 광역·기초조례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수많은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전국

장애인 누구나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문상필 더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조례를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별 정책의 차이로 받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민 교통편의 증진 위해 기여 공로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의회는 11일 임 의장이 중앙하이츠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예산 확보를 건의해왔으며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도로 개설에 물꼬를 튼 바 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230m, 왕복 4차선 규모로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동서간선도로와 연결로로서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물론, 보도 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산=김정환기자

"한국은 이미 선진국, 자부심 갖고 미래로 가면 된다"

파안장학문화재단,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초청강연



서울대학교 등 전국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미래를 활기차게 견인하는 (재)파안장학문화재단(이사장 명위진)은 지난 12일 명 이사장의 고향인 충남 청양에서 뜻깊은 명사초청 특별행사를 가졌다.

파안장학문화재단은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청양문화회 솔회관 소공연장으로 초청해 '미래 한국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안목을 넓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명위진 이사장과 성낙인 전 총장, 김병철 전 고려대학교 총장, 명동성 전 법무연수원장, 명순구 고려대 교수, 김돈근 청양군수, 청양군내 학생, 주민 등 25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대표 헌법학자이기도

한 성 전 총장은 "세계적으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그동안의 산업혁명을 되짚어보고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 한국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기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며 "비록 조선시대에 진행된 세계적 1차, 2차 산업혁명에서는 소외됐지만, 3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갖지 못한 채 성장이나 미래 개척과 관련해 세계를 활발할 꿈

꾸지 못한다"면서 "오늘 강연을 듣는 학생들만이라도 꿈을 크게 꾸면서 뚜벅뚜벅 세계로 달려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직접 가서 보니 4차 산업혁명이 물고 온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토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4차 산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각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사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 한국에는 개인적 비전과 능력을 자산으로 산학협력 강화, 기업가 정신 함양, 대립보다는 통합의 정신이 절실하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 통인과 상생의 시대들이 끝 통합적 리더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 전 총장의 강연에 앞서 명위진 이사장은 "성공은, 넘어지는 횟수보다 딱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라는 좌우명을 소개하면서 "파안장학재단이 뿌린 씨앗이 청양과 한국을 넘어 세계에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돈근 청양군수는 "지금 시점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기성세대'라면서 "적어도 육체적 배고픔을 겪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꿈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중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위한 전문강사 초청 교육

2019년 정례회 및 임시회 대비 의정활동 전문지식 교육



대전시 중구의회의장 서명석은 12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를 초청, 의정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2019년 의회 회기입정에 대비 권선필 목원대 교수, 남기현 충청대 교수, 최호백 배재대 교수, 송인방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시민과 의회가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4차 산업혁명과 법률 등 분야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교육 받았다.

특히, 대전시 중구의회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사)대전광역시 중구 의정회에서 정종섭 중구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의정회원 6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선배 의원으로서 의정발전 방안에 대한 조언을

이까지 않았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강사와 의원 간에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명석 의장은 "제8대 중구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원 교육을 통해 25만 구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발로뛰며 시민들과 소통이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

인치견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

제8대 천안시의회는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25명의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천안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제8대 의회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고 있다. 이는 투명하고 공개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보자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다. 대전투데이는 제8대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인치견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1주년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1년 동안 우리 천안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한 동료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 속에서 제8대 천안시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해결해야 할 입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항상 ‘시민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힘을 냈습니다.
의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변화된 의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고,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했습니다.
요즘 지나다보면 ‘천안시의회가 예전보다 달라졌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칭찬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소통 의정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의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정 릴레이’를 통해 한국 어린이연합회 천안시지회와

의 감동회를 시작으로 천안시보훈단체, 대한노인 천안시지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천안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정에 반영토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청소년들과 의회의 소통 창구를 넓힐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를 만들어 올해 5월에 ‘제1기 천안시 청소년의회 발대식’ 가졌으며, 7월 시장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관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22일 제1차 정례회의부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기 중에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2회 본회의 기준 200여명이 회기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했고, 천안시 홈페이지 ‘열린의회’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천안시의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댓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중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젊은층에 다가가는 열린 천안시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재미와 유익함을 주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의 지속적 순항을 위해 현시점에서 의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

엇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당을 떠나서 천안시의회 모든 의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천안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결의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의원들간의 소통을 비롯해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앞서 말씀드렸시피 소통의정 릴레이, 인터넷 방송, SNS, 청소년의회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경제·산업, 행정·안전, 복지·문화, 건설·교통 분야별 연구과제 목표를 설정해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위한 의원들 간에 소통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보존 및 활성화 연구모임’(건설교통 위원회)을 비롯해 총 9개의 연구모임을 통해 의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원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의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새로운 지역예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하고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 2년차도 소통과 대화를 통한 운영기조 유지할 것이며,천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1년의 성과 중 의장님이 가장 보람있게 느끼시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간 발의한 조례는 45건입니다. 앞선 제7대 천안시의회가 같은 기간 조례발의 22건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단순조례 제정 건수만을 비교하는 것을 떠나 그만큼 입법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45건의 조례 중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한 사람을 위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천안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은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른 조례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염원으로 이어져 올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격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1월 70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천안시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70만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천안시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며 현재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의 최종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의회와 지난 3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사업시 천안아산역 설치를 강력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사업 계획에 미반영된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며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대 천안시의회 출범 직후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매트리스는 천안에 있는 제조사에 보관되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정부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187.9 직산읍 판정리 제조사 본사를 현장 방문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거쳐 7.13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라돈 침대』 사태의 안전하고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문’을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으로 제출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31에는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주민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매트리스 분리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7.31일에 2만 4천여장의 라돈성분 매트리스 중 6,700여장을 해체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의정운영의 주안점은?
계획된 회기 일정을 지키는 신뢰있는 의회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연구 모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자회의시스템구축, 청소년 의회 운영,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등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큰 천안을 위한 행

복한 동행’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정되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높이기 위한 활동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위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지난 제22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1. 겸직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공개 2. 겸직신고 내용의 범위 명시 3.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청렴연수원에서 진행된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 청렴서약, 청렴 콘서트, 청렴 리더십 특강’을 통해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청렴배우 과정’ 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의회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 협력 추진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의원들이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리더십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70만 천안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본연의 역할입니다. 또한 의원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이 또한 천안 시민을 위한 의원들의 열정을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성장통’으로 바라보며 천안시의회를 향한 굳은 신뢰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담= 이정복 부국장

'고맛나루 쌀' 이라크 첫 수출길 올라

공주시, 고맛나루 쌀 1200포대(12톤) 이라크 파병부대로 수출

공주시(시장 김정섭)의 대표 농산물인 '고맛나루 쌀'이 본격적인 이라크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11일 통합 RPC에서 열린 수출 선적식에는 김정섭 시장과 박병수 시의회 의장, 차재희 농협공주시지부장, 지역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맛나루 쌀 1200포대, 12톤을 선적했다.

고맛나루 쌀은 그 동안 미국 시애틀과 중동 두바이, 쿠웨이트 등에 수출된 바는 있지만 이라크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수출을 계기로 매 분기당 1200포대가 정기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공주시 통합RPC(대표 이한석)에서 수출하는 '고맛나루 쌀'은 삼광벼 단일품종으로 충남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018년 연속으로 우수브랜드를 수상했으며, 최신식 건조시설과 저장 및 현대식 도정시설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식품전문회사인 오투기를 비롯한 CU편의점 도시락 등 주요 납품처 및 고맛나루 장터 구매고객으로부터 좋은 밥맛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김정섭 시장은 "고맛나루 쌀" 고품질 상품화를 위해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를 육성하는 한편 국내 고맛나루 쌀 소비를 위한 홍보관측과 해외 수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최근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지역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당진시 수산자원 확충 '앞장'

수산종묘 방류로 어족자원 다양화

당진시가 매년 수산종묘 방류로 어족자원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지역은 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사업과 간척사업, 항만개발 등의 영향으로 바다면적이 감소하면서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접봉어와 감성돔, 조기불락, 넙치 등의 치어를 해상 방류해 수산자원을 확충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도 당진시는 지난 5월 접봉어 종자 22만 마리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감성돔 종자 16만 마리와 넙치 종자 13톤을 당진 앞바다에 방류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9월 넙치 종자 46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달 말까지 조기불락 2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어족자원 확충과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달 6월 뱀장어 800마리와 메기 종자 15만 마리를 대호호와 석문호, 삼교호에 방류했으며 향후에도 동지개와 쏘가리 품종을 추가로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방류한 수산종자는 1~2년 정도의 성장과정을 거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낚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청양군 푸드플랜 전담 전문가 2명 위촉

충남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푸드플랜 실행지원 전담 전문가(FD: Family Doctor)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업의 체계적 추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1개 지자체에 2인의 전문가를 위촉해 세부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의 도움을 받으며, 현장중심의 사업 이행 점검과 성과 측정,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등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 10일 농촌공동체과 사무실에서 청양군 전담 전문가로 위촉된 배옥병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과 양석준 상명대학교 교수와 함께 현 사업추진 현황과 추후 계획을 점검했다.

두 전문가는 농촌공동체과의 주요 업무와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 조성 등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 향후 5년간 월 1회 현장자문을 통해 전국 최고의 선도모델로 창출에 함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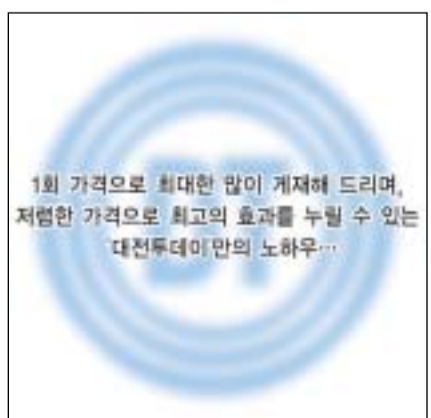
두 전문가는 이날 친환경농산물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최초 푸드플랜 최저가격보장제, 연중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부작포 활용한 무제초제 농산물생산 확대 정책 등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특히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과 위상 제고, 지역 농협과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참여,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확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2월 푸드플랜 추진대상 전국 9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돼 사업비 62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수립한 청양지역 푸드플랜에 기초해 각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면서 "외부 전문가의 값진 자문을 반영하면 더욱 내실 있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 수료식 열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0일, 음봉면 소재 (사)충남디스플레이 산업기업협회의회에서 '2019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사업' 수료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사업'은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교육을 통해 지역청년에게는 양질의 직업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아산시 청년지원 사업이다.

(사)충남디스플레이 산업기업협회의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2개월(360시간)에 걸쳐 Auto Cad, Solid Work, NCS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회원사 현장견학, 다ierk트 취업매칭, 나만의 자소서 작성법, 디스플레이 실무자 간담회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 특화된 취업 서비스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했다.

교육생들은 지역 청년 미취업자 16명으로 전원 수료와 함께 관련분야 자격증

을 취득했다.

이중 9명은 수료와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으며, 나머지 수료생 역시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유수호 충남디스플레이 산업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청년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약 1,000만원 정도의 고용보조금 혜택까지 있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기업 회원에서 역으로 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채용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사회적경제과장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실행으로 채용 즉시 현장근무가 가능하고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기업, 청년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중장기형 채용모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중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외연을 넓혀 더 많은 청년 및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올 8월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에 '청년내일센터'를 개소해 심층주직상담, 자기소개서작성 컨설팅, 면접특강, 직무체험 등 청년에 특화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량주기자

태안군 올해 정기분 재산세 71억 2900만 원 부과

태안군이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3만 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7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71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65억 81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와 분배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태안=김정형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받아야 납품가능하다

aT사이버거래소, 하반기부터 10개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추어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

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체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aT)은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의 89%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무형성과 효율성을 갖췄다.

송병배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기준법 설명회 열려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지난 12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근로감독관 설명하는 노크(Knock) 토크(Talk)근로기준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이 기초노동정책서 확립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당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담당자를 비롯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예비)사회적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외에도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최저임금 개편 등 현장에서 궁금했던 사항, 현재 이슈가 되는 고용노동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재정 지원 사업 참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모음을 배포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근로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철도공단 폭염대비 선로 안전점검 시행

선로변 안전장치 등의 철도시설물 집중 점검해 안전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선로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여름철 철도선로 불안정성에 대비해 통풍불량, 일조량 과다로 온도상승 우려가 큰 경부고속선 오송-천안 구

간 등의 18개 취약개소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선로변에 설치된 자동살수장치, 레일온도 측정장치, 차열페인트 도포상태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또한 열차로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살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포럼

백제세계유산센터 주최 '교육과 세계유산의 활용' 주제 진행



위원회 전 회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에릭 제루도(Eric Zamudo) 산토 토마스 대학교 교수의 '필리핀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영향' ▲카타르지나 피오트로프스카(Katarzyna Piotrowska)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정책국장의 '세계유산 활용: 폴란드 사례연구'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의 '디지털 시대 문화유산 관리기관의 대응'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오는 19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교육과 관광을 통해 본 세계유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발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수잔 밀러(Susan Miller) 이코모스 문화관광

나소열 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장은 "이번 학술포럼에서 이야기되는 다양한 전략과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센터의 정책에 반영" 하고 "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적,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관광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술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학술포럼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전북도청,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 후원한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 지속가능 도시 성공사례 살펴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위한 해외 벤치마킹...독일 프라이부르크 방문

아산시(시장 오세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연구단은 7월 7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도착해 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 시청,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역위원회, 보봉단지, 프라이암트 바이오에너지 마을 등을 이틀간 방문하며 연구일정을 이어갔다.

연구단이 방문한 프라이부르크는 이미 4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등 독일을 넘어 세계의 환경수도로 불리며 전 세계 국가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 곳이다. 타 지자체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아산시의 공공건물 패시브하우스 정책 역시 10여년전 방문한 프라이부르크에서 단초를 얻어 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첫 방문은 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에서 시민이 주도한 환경도시로의 태동,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트램·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방문한 프라이부르크 시청에서는 독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인구가 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현황과 함께 태양에너지 이용과 자가발전 장려 정책, 에너지 소비량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건물과 주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프라이부르크 지역위원회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기 품질과 깨끗한 공기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아산시 연구단은 난방 및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를 다양한 정책, 특히 시민과 합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의 정수를 보여주는 프라이부르크 신시청사 건물 방문에서는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문답을 비롯해 공유차량 활용, 직원 자전거 이용을 위한 샤워시설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이틀남은 프라이부르크 중앙역

사에서 트램과 자전거로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을 살펴보고, 보봉단지에서는 도보로 이동하며 소비전력의 5배를 생산하는 헬리오트롭 건물을 비롯해 태양열에너지 주택단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내연기관 차량 줄이기 정책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이어 풍력발전시설 1기당 백여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주주 방식으로 운영되는 흑림 풍력발전단지, 분노와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도 전기를 생산하는 프라이암트 마을 등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우수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환경친화도시 아산의 미래를 위한 혁신에서 시민과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희망찬 미래를 구상할 때 필요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 프라이부르크에서 다양한 해답 중 하나를 찾아간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동부교육지원청Wee센터

'찾아가는 길거리상담'

대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Wee센터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평생학습관에 서초·중학생 음악경연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사·학부모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길거리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Wee가 찾아간다'라는 주제로 생명존중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길거리 상담을 통한 생명존중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자신과 친구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선언서약식을 선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생명존중 리플릿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김정환기자

daejeontoday.com

'일학습병행 현장훈련 출범식' 개최

배재대 IPP사업단, IPP형 일학습병행 현장훈련



배재대 IPP사업단은 12일 'IPP형 일학습병행 현장훈련(OJT)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학습근로자 34명과 학습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현장훈련 시작을 격려했다.

지난 5개월 간 현장의 훈련(OFF-JT)을 무사히 마친 학습근로자들은 매칭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이어간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해 참여기업 우수사례 발굴, 우수 학습기업, 우수 기업현장교사 시상식이 이뤄졌다.

학습근로자 중엔 우수 학습노트 시상식도 병행됐다.

이상수 IPP사업단장은 "배재대 IPP사업단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여지 없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매칭기업으로 나가는 학습근로자들도 일학습병행으로 남보다 한 발 먼저 기업을 경험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순천향대, 제6회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시상식 '우수상' 수상
순천향대(총장서 교일)는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6회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시상식'에서 대학기금 부문 '우수상(교육부정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리미엄과 'CHV 런칭 공익연계 마케팅 사회공헌' 협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주)프리미엄과 나눔문화 확산과 대전지역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원스톱 통합돌봄 교두보 마련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3억 확보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에서 함께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손오공' 설치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기존의 정책이 수요자들의 돌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 이를 통합·연계하는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독박육아, 틈새보육 지원 등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강조해 전문가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손오공은 민선7기 약속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착안한 사업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돌봄사업들을 손오공이라는 하나의 거점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 통합연계, 품앗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로 함께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신개념 '대전형 아이돌봄' 모델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토리사랑방, 물품공유소, 도담도담(육아카페), 맘코치 양성(배달강좌)으로, 단순돌봄서비스 제공이 아닌 맘코치 양성과 지역관련 사업을 접목, 여성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김태선기자



"작은 실천 통한 큰 행복의 시작"

당진시 노인복지관 시니어 봉사단 클린 캠페인

당진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2일, 지역사회 환경정리 활동을 통해 당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인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인 자원봉사사업 시니어 봉사단 하반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일 진행된 클린 캠페인에 당진 시니어 봉사단원 40여 명과 사

회복지원장실습생 5명이 함께 참여하여 따라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실시했으며, 환경정리 활동은 여름 수변공원 인근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으로 진행했다. 이병하 관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시니어 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이제우린, 계족산환경투길로 가자' UCC공모전 시상식

맥키스컴퍼니,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10개 작품 수상 영예



충청권 대표소주 '이제우린'을 만드는 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가 지난 13일 오후 2시 계족산환경투길 숲속음악회장에서 '이제우린, 계족산환경투길로 가자!' UCC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맥키스컴퍼니는 '2019-2021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의 대표명소인 '계족산환경투길'을 알리고 대전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UCC공모전을 실시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완성도 높은 100여건의 작품이 접수 되는 등 경합을 벌였다.

공모된 작품 중 표현력·독창성·완성도·활용도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외국인코리아' 팀(오대용, Annabella Greer)의 '외국인이 맨발로 계족산환경투길 자연을 걷다' 작품이 공모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국인인 직접 맨발로 계족산환경투길을 걸으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했으며,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계족산환경투길의 느낌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우수상은 '신나는 EDM, 자작곡으로 만든 계족산환경투길 뮤직비디오!'의 김동수씨가 차지했다. 이 외 우

수상 2팀, 장려상 6팀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2팀), 장려상 50만원(6팀) 등 총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졌다.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은 향후 계족산환경투길을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재가공돼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외국인코리아' 팀의 오대용, Annabella Greer 씨는 "직접 계족산환경투길을 맨발로 걸어본 사람으로써 힐링과 자연 혹은 색다른 경험을 느끼고 싶은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다"며 "이런 멋진 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조웅래 회장을 비롯한 맥키스컴퍼니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전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공모돼 계족산환경투길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수상작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하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으며, "계족산환경투길을 비롯해 대전에는 지역 곳곳에 명소가 많다.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분들

공주시 공고 제2019-1381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5.

공 주 시 장

1. 공람기간 및 의견 제출기간 : 2019. 7. 15. - 7. 31. (16일간)
2.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47),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3.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제치지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예 생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47)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8.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 등은 금지합니다.



당진경찰서 송악파출소,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대덕구, 여름철 대비 대형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나서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아산시, 범죄취약지역 대상 범죄예방활동 펼쳐



서산소방서, 온열환자 구조준비 이상무



공주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서산 대산발전협의회 '선집회 후협상' 물건너 갔다

대다수 이장들 반대로... 임원들 교체 등 쇄신 이뤄질지 '주목'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발전협의회와 화학안전사고 대책위원회가 '대산공단 유증기사고' 관련해 '선 집회 후 협상'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대다수 이장들의 반대로 무산돼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이장단협의회는 집회 반대 결정과 함께 이장단 명예훼손에 대해 공개사과는 물론 현수막을 게수했지만 이마저도 표결에 의해 묵살 당했다.

앞서 대산발전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이장들을 비하하는 현수막 27개를 도로변에 게시하면서 양측에 갈등이 심화됐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에는 대산발전협의회 간부 2명과 회원 여러 명이 읍사무소에 찾아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아산시,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아산시보건소는 지난 11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신건강 안정망 강화 현안논의를 가졌다. 시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의 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아산병원, 아람메디칼병원, 열린성애병원, 마음앤정신의학과의원가 참여하는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야간·휴일 당일 정신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건비 재정 지원 방안, 자·타해 위험이 우려되는 환자의 이송 시 경찰 대응 협조, 구급대원 및 경찰 대상 정신질환 전문교육 도입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관련회의(공동의장 김병성 서울대 행정대학원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 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가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실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 및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 마련 ▲ 겸직 관련 감시·자문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이익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당진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기온 상승으로 벌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벌 쏘임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진소방서는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벌의 주의를 끄는 밝은 색상의 옷을 지양할 것 ▲향수나 향기가 강한 화장품의 사용 삼갈 것 ▲주변의 벌을 자극하는 행동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당진소방서장은 “보호 장비 없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벌집 등 유해물질을 발견 시 119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성공적인 운영 화재안전특별조사반 간담회 추진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최근에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와 적극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즈제일여성병원, 자연주의 출산 권장 병원 대전·세종 최초 브이백(VBAC) 자연주의출산 성공



그에 맞는 대비를 한다면 안전한 브이백 자연주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즈제일여성병원은 자연주의 출산 권장 병원으로, 대전·세종지역에서 최다 자연주의 출산율을 자랑한다.

미즈제일여성병원(대전 유성구 위치, 병원장 이정간)에서 6월 28일 오전 00시 31분에 브이백(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자연주의 출산에 성공했다.

▲Q&A 브이백 <응급 상황 대비해 마취과 의사 상주 병원 확인 필요! > Q) 모든 산모가 가능한가? 제왕절개를 했던 모든 산모가 다 VBAC을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 “중구지회와 함께 사랑의 복 나누기”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 이기재 회장과 조직간부 및 회원 50여명은 지난 12일 초복을 맞이해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포함)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계탕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서천소방서, 불 나면 '대피 먼저 교육'

김태성기자

세종시 공무원 임용 필기합격자 여성 '강세'

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15일 조치원 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60명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se.go.kr)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629명의 접수자 중 393명이 응시해 평균 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필기시험 결과 교육행정(일반) 51

명, 교육행정(장애) 3명, 교육행정(서소 등) 3명, 식품위생 3명이 합격했다.

합격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13명(21.7%), 여성 47명(78.3%)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 현황은 26~30세 23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21~25세 19명(31.7%), 31~35세 13명(21.7%), 36~40세 5명(8.3%)이며 최연소는 21세, 최고령은 40세이다.

또한, 교육행정(일반)의 필기합격선은 총점 356.7점이고, 양성평등 목표제(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 부여)에 따른 합격선은 총점 343.98점으로 집계됐다. 성적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7월 18일 오후 6시까지 원사접수 사이트(http://homedu.sj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22일(월)까지 필기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7월 30일(화) 면접시험을 거쳐 내달 8월 7일(수) 최종합격자 52명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se.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글 교육부터 기초학력 충실히 다진다

충남교육청, 한글 교육 교원 연수 실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읽기 부진 학생의 통합적 기초학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초등·특수교사 85명을 대상으로 13일 아산 캠프인재개발원 다목적실에서 한글 교육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읽기 부진 학생의 통합적 기초학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초등·특수교사 85명을 대상으로 13일 아산 캠프인재개발원 다목적실에서 한글 교육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읽기 따라잡기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으로, 하위 20%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문해력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들은 읽기 부진 학생에 대한 일대일 조기개입을 통한 집중교육으로 평균적인 읽기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충실히 한글교육을 위해 한글 교육 시수를 88차시 이상 확보해 지도하는 한편, 초기 문해력 지도를 위한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탕정초등학교 남해원 교사는 "교실에서 한글 지도를 하면서 고민이 깊었는데 연수에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충남 교사학습공동체, 수업 나눔 한마당

과정형 수행평가 사례 공유 및 평가 고민 나누기



충남 교사학습공동체(연합회장 조미경)는 지난 11일 수업 나눔 한마당을 아산 설화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석교사 수업연구회 5개 교사학습공동체가 참여했으며, 과정

형 수행평가 사례 공유 및 평가에 대한 나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분과별로 컨설턴트로 참석한 수석교사와 함께 교사 간의 수업 고민에 대한 대화와 토론으로 진행되어 참석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업 나눔에 참여한 전병범(아산고) 교사는 "상반기 동안 과정형 수행평가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 2학기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교사학습공동체는 2학기도 중등 연합 교사학습공동체와 단위 학교의 교사들과 수업 나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인식·인권 정보제공 기회 제공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 '둘이 함께' 진행



대전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2일 대전우송고등학교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은 장애인 인식·인권 정보제공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했으며, 부스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고자 진행했다.

캠페인 진행은 학생들이 부스에 처음 방문할 시 미션지를 나눠주고 장애인식 Q&A, 톨캣돌리기, 장애 뇌구조 그림 풀이, 장애용어 바보알기, 풍선 터트리기, 나만의 컵 디자인하기, O·X퀴즈 풀기, 시각장애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체험해 미션을 완료하면 기념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션수행 이벤트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참여도도 매우 높았다.

윤창호 관장은 "캠페인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권익옹호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에스원, 남일제과, 대전시농업기술센터, 아이슬, 일과문구 목원점, 에듀에이드에서 현금 및 물품을 후원했다.

송병배기자



청양교육지원청, 고경력 교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기행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유초중고 고경력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기행을 실시했다.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홍성교육지원청, 학교·보건소·교육지원청 간 감염병 공조 체계 강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은 지난 12일 홍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보건교사, 담임교사와 홍성군 보건소 감염병 관계자 56명을 대상으로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원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모의훈련은 동국대의과대학교 유석주 교수의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의 필요성 및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방법' 특강, 학교내 빈발 감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거 감염병 대응 단계에 따라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찾는 도상훈련으로 진행됐다.

매년 홍성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은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보건소, 교육지원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환기자

2019 초등학교 인라인 롤러대회 개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7월 13일 논산학생롤러경기장서 개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이 주최하는 '2019년 논산계룡 교육장배 초등학교 인라인 롤러대회'가 2019년 7월 13일 논산학생롤러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롤러대회에는 논산, 계룡 관내 초등학교생 롤러선수 93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논산대동초등학교교장 김종만을 거점으로 인라인롤러부를 운영하고 코치를 채용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어린 선수들의 실력이 늘고 있어 앞으로 논산계룡체육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유미선 교육장은 "오늘 롤러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롤러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확산 위한 MOU



류형철 취업지원부장 및 관련 교사 등 각 교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양 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확산을 위한, 협동체제 확립, 고졸 취업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취업 및 학위과정을 연계한 우수기업 공동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승희 공과대학장은 "우리 대학의 안정된 일학습병행제 사업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을 주도하는 전문 기술인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금번 협약을 통해 양교가 상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향후 비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주=정삼범기자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공과대학(학장 한승희)은 지난 7월 11일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확산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 행사는 공과대학의 한승희 학장을 비롯해 이기선 부학장, 공헌택 총괄교수, 김기수 행정실장 등 공주대 관계자와 위성숙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과

부여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고도문화강좌 운영

오는 10월 4일까지 부여군 초·중학생 대상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윤학중)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부여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도(古都)-부여와의 만남' 찾아가는 고도문화강좌를 운영한다.

부여행복교육지구(일환)의 일환으로 (재)백제고도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고도(古都)-부여와의 만남' 찾아가는 고도문화강좌는 백제문화 전승교육과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이해를 통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여교육지원청 소속의 마을교사와 (재)백제고도문화재단의 강사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도(古都)-부여와의 만남' 찾아가는 고도문화강좌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 부여 세계유산 강의 1시간과 백제금동대항로 또는 백제능사오층석탑 3D입체 모형 만들기 체험 1시간으로 총 2시간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초·중 21교가 참여하게 된다.

서산초, 하굣길 교통 안전캠페인 펼쳐

점심시간 이용해 학교 앞 정문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서산초(교장 안덕원) 학생회 임원들은 1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앞 정문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반반하자 학생회 임원. 주도하에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학생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정문 앞에 설치된 신호등이 오후 1시~4시에 작동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학생회 임원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운전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교통규칙, 특히 신호등과 규정 속도를 준수해줄길 부탁드리는 내용의 캠페인을 펼쳤다.

서산=김정환기자

아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콘서트 성료

'진로콘서트-사람책 도서관'·'버스 타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진로원정대'



아산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박진웅)는 전문직업인이 학교로 초대받아 '진로콘서트-사람책 도서관'과 아산지역 다양한 체험처로 직접 가는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진로원정대'를 진행하고 있다.

가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나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사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제언을 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진로체험 진로원정대는 2일 배방중(269명)-12곳의 체험처 매칭, 4일 선도중(14명)-1곳의 체험처 매칭, 5일 설화중(301명)-13곳의 체험처 매칭, 5일 용화중(16명)-1곳의 체험처 매칭으로 총 599명의 아산시 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처를 선택해 방문하고 관심 있는 직업 분야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진로콘서트-사람책 도서관'은 지난 5월 모산중편을 시작으로 2차로 지난 4일 온여중 1학년 학생들이 선택하고 참여하여 6명의 전문직업인(소호스트, 영상작가, 간호사, 사진작가, 코딩전문가, 진로특강강사)과 9일 온양중 전문직업인 4명(순해설가, 코딩전문가, 드론전문가, 정비사)을 초대해 진행했다.

앞으로도 아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버스로 찾아가는 진로원정대'와 '진로콘서트-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줄 계획이다. **아산=리영주기자**

● 특 ● 정 ● ●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 15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 회의에 참석.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 1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에 참석.

예산읍 임시 고추시장 25일 개장

예산읍(읍장 함용섭)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예산군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임시 고추시장을 운영한다.

임시고추시장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 시기에 맞춰 주민 편의 및 재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3시간동안 운영하며 비가 올 경우 열리지 않는다.

기존 임시고추시장은 역전장남에는 농산물종합 주차장, 예산장남에는 예산군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장소를 나눠 운영해 왔으나 공간 협소 등 문제로 예산군종합운동장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읍은 차량질서유지 및 환경정화를 위한 근무자를 배치해 고추시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함용섭 읍장은 "임시고추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성황리에 운영돼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고추시장은 2000년 처음 운영된 이래 20년간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해 품질 좋은 고추를 거래해 왔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성구 기자



세종소방본부안전체험 행사 실시

세종소방본부(본부장 백택곤)가 13일 119소년단 및 지도교사 등 학생 1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119소년단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소방안전교육과 각종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단체로, 지난 4월 20일 발대했다.

이날 세종 119소년단은 전북도 119안전체험관 재난종합체험관에서 ▲4D 재난영상 체험 ▲소화기·소화전 체험 ▲화재·연기탈출 체험 ▲지진 체험 ▲태풍 체험 등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체험과 물놀이 안전체험 ▲익사사고 체험 ▲선박탈출 체험 ▲급류사고 체험 ▲뱀목건너기 ▲구명보트탑승 체험 등 5시간에 걸친 다양한 체험을 참여하며 안전 의식을 다졌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119소년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안전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친환경 농업 메카로 진면목 굳혀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을 받은 충남 홍성군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친환경 농정 정책을 시행한다.

홍성의 친환경 농가수는 2018년 기준 669농가 616ha며, 유기농업 특구 지정지는 홍동면 구정리 55-5번지의 2,785필지에 이르고 있다. 면적만 5,798,315㎡ 이리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19년에 2021년까지 유기농업특구 연장을 받았다.

올해 농식품부로부터 홍동면 문당리와 장곡면 도산2리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시범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는 홍성군은 먼저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의 체질을 확실히 개선할 계획이다. 홍성군

의 특성에 맞는 홍성형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올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개인 및 공동체의 농업 환경·경관 보전 활동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참여 주민들은 농업환경 보전 및 경관 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600여 농가의 인증비,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며, 친환경 밀 보급을 위해 수매자금 보전금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확대를 위해 관내 42개교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판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초중학교에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한편, 유치원과 고등학교 급식은 친환경 농산물 차액 보전제를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약 42억 원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노원구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공급도 연계 추진한다.

또한 은하면 장척리에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도 조성된다. 군은 센터가 조성되면 친환경농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 및 충남도내 거점 친환경 물류기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50억 원으로, 유기농산물 가공센터와 유통센터도 건

립해 유통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군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홍성형 자주 인증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며, 유기농업특구 및 유기농업 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에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농산물이 선순환되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슬기로운 세종생활 시즌2

세종시 8개 과제 다양한실험

시민들이 힘을 이워 직접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해결해가는 '슬기로운 세종생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슬기로운 세종생활 시즌2'라는 제목으로 '똑똑세종 실험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과속방지턱 안전하고 즐겁게 ▲점진적으로 공회전, 오토바이 줄이기 ▲상황별 안내멘트를 통한 적절한 분리수거 유도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 부지 쓰레기 발생량 비교 등 8개다.

특히 '점진적으로 공회전, 오토바이 줄이기' 과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회전의 폐해를 일일으로써 공회전 줄이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과제로 배대업체와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황별 안내멘트를 통한 적절한 분리수거 유도' 과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 쓰레기장의 정렬유지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용이하다.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 부지 쓰레기 발생량 비교' 과제는 청결하고 쾌이 가꾸어진 단독주택 부지의 방치된 단독주택의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보는 실험이다.

이외에도 '과속방지턱 안전하고 즐겁게' 과제는 방지턱 충격실험 및 분석을 통해 방지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검증하고 자체적으로 설계한 방지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슬기로운 세종생활 시즌2 '똑똑세종 실험실'은 다음달 21일까지 실험을 진행하며 9월까지 '똑똑세종 자원위원회'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정준 규제개혁팀 무담당관은 "똑똑세종 실험실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시민구현 특별자치시 세종시의 대표 브랜드"라며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똑똑세종 실험실'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등록률 17.7% · 치료비지원율 63.21%상승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예산군 치매관리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로 2762명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시설과 인력을 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의 촘촘한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과 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그 결과 7월 현재 총 2106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됐고,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7.7% 향상한 수치이며 치매 치료비 지원율도 63.2% 높아졌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12개 읍·면을 동부대출, 신양, 서부(삼교, 덕산, 봉산, 남부(광시, 대흥, 응봉), 북부(고덕, 신암, 오가, 중부(예산읍) 등 다섯 권역으로 편성해 치매 전문진단인력 12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독거치매와 부부치매 등 중증 대상자 400여명을 매달 방문해 돌보며, 지역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가정에 매 주 반찬을 배달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치매 진단을 위한 사전 진단검사에 임상심리사를 비롯한 간호사 10명이 출장검사를 나가면서, 지난해 말 440명 진단 실패를 이달 기준 470명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아울러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전 군민 치매검진비, 치료비 지원을 통해 등록환자의 60.7%인 127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심터 윤

김성구 기자

제15회 한국쌀전업농 충남도 대회

쌀전업농민, 농업 선진화 · 희망 공감대 형성

'제15회 한국쌀전업농 충남도대회'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충남 쌀의 미래는 쌀 전업농의 힘'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쌀 산업의 위기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광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국회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충남농업의 선진화 방안과 희망을 공유했다.

첫날인 11일에는 초대가수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시상식, 시·군 노래자랑, 연애 축하공연과 환영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제1회 예산황새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제1회 황새축제 '첫 발'

황새의 고장 예산군이 제1회 황새축제 개최를 위한 첫 발을 뒀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제1회 예산황새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제1회 황새축제는 오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인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은 예산황새공원에서 열린다.

군은 이번 축제에서 한·일 황새복원 교류회, 황새 야생방사 행사, 만뽕놀이 체험, 황새 생태놀이터, 청소년 황새사랑 그리기 대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daejeontoday.com



충남도 양파 · 마늘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농산물 가격안정 · 소비촉진 적극적 활동 펼칠터"

충남도는 12일 '도 광역직거래센터'에서 마늘 · 양파 · 감자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과 양파, 감자 생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

롯해 농협충남지역본부장, 충남농업회의소장, 서산부석농협 조합장 등 소비자와 생산자 10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가한 생산자들은 감자 무료 시식행사와 제철농산물 소비 운동 등을 펼치며 질 좋은 양파, 마늘(간마늘, 통마늘), 감자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1가구 2집 사주기 운동 등 소비촉진 운동을 김장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1일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마늘 · 감자 유통사업, 통마늘, 감자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

세종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등 포함 19종으로 확대

세종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지원되는 11종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증후군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이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지원 분야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개 질환이다.

이와 함께 또한, 조기진통 지원 기간이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9년 1·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신부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서출산대책담당 ☎ 044-301-2135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하노이 · 방콕 · 프놈펜 진출 희망기업 대상 · 26일까지신청 · 접수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동남아 무역사절단' 과제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무역사절단은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7박 9일 동안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 캄보디아(프놈펜)를 차례로 방문해 수출상담회를 갖게 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우수한 기술

력을 가진 지역의 중소기업이 최근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연평균 4.9% 경제성장률로 중국을 대체하는 거대한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은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등 일반 소비재에 대한 관심도

가 높고, 캄보디아는 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 수준향상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 건설장비,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알선 ▲왕복 항공료의 40% ▲상담장 및 차량 임차비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이메일(hotuna@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청년타운 조성 추진 '착착'

당진시, 44억 원 투입... 내달 초 설계 마무리·연내 준공 추진

당진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창업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당진 청년타운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청년타운은 44억 원을 투입해 옛 군청사 별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36㎡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청년타운에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와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들을 위한 창업 입주 공간, 창업 관련 포럼 등이 열리는 콘텐츠스튜디오 등이 조성된다.

특히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해볼 수 있는 창조적 활동



공간인 팹랩과 제품 홍보물 촬영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갖춰 시설과 홍보까지 청년타운 한 곳에서 윈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당진시는 지난 2월 청년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해 내달 초 완료 목표에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8월 중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시작돼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며, 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창업 공간에 입주할 대상자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청년타운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실현하기까지 모든 것들이 윈윈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청년타운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성 이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지별적 주민참여 유도·청양형 모델 완성할 방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푸드플랜과 공공급식, 마을 만들기 등을 총괄할 (가칭)청양지역활성화재단(이하 청양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상황실에서 열린 용역착수 보고회에는 마을만들기, 푸드플랜, 부자농촌지원센터 관계자와 용역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청양활성화재단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자농촌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을 중심으로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중앙부처별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양활성화재단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실현이라는 공적의 추구와 지속가능성, 안정성, 독립성을 갖춘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적용해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 기관과의 기능 중복성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적정자본금 분석 등 법적, 정책적 타당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중앙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행정주도 획일적·하향식 지역개발에서 주민과 지역주도 차별화된 상향식 추진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자별적 주민참여를 유도, 청양형 모델을 완성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지난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관련한 용역에서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심플하게 구성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군은 청양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에 앞서 지난 5월 ▲기존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부자농촌지원센터 등 유사 조직간 연계·통합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푸드플랜 사회적경제 지역복지의 포괄적 연계방안 ▲통합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과 역할 ▲행정과 통합중간 지원조직간 관계설정 및 민관협력 모델 정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의 주민총회가 궁금하다

당진지역 주민총회 개최 참관 접수 조기 마감

당진시가 지난해 시범 도입해 올해 14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주민총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뜨겁다.

당진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중 하나인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주민이 모인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일종의 마을회의로,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들이 직접 실행한다.

당진시는 올해 14개 읍면동에서 실시되는 주민총회 일정에 맞춰 이달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주민참여 주간으로 정하고 이달 23일과 24일 주민자치 정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당진시는 이번 정책박람회와 연계해 23일 열리는 당진2동 주민총회와 24일 예정된 신평면 주민총회를 직접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8일 만인 지난 10일 모두 마감됐다.

당진시는 각 주민총회 별로 100명 내외의 참관객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에서 신청이 몰리자 당초 계획보다 참관 인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당진2동 주민총회의 경우 140여 명, 신평면 주민총회는 160여 명이 현장에서 주민총회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에 포함될 정도로 주민참여의 이상적인 주민자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광장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주민총회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동정

국소장 간담회



오세현 아산시장은 15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국소장 간담회'에 참석.

본회의



김홍장 당진시장은 15일 오전 8시 30분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월요 간부회의를 주재,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제1차 본회의



김기재 당진시의장은 15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회토론회



가세로 태안군수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자원봉사자

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

주간업무계획 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는 15일 오전 8시 30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

청양군 석면 피해주민 보호 계속

15일 강정리 대상 건강영향조사 실시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15일 비봉면 강정리 일대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날 조사는 석면피해 현황을 분석한 후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던 조사의 연장으로 폐광산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50세 이상 주민이 받을 수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학적 특성, 거주역력, 직업역력 및 유해물질 관련 노출역력 등을 파악한 후 석면질환 의심 주민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촬영, 전문의 진찰 등 조사과정을 전담한다.

1차 검사자 중 의심주민에 대해서는 2차로 고해상도 CT(HRCT), 3차 폐기능 및 폐확산능 검사 등 정밀 검진이 실시되는 등 석면질환의 임상적 진단과 확진을 위한 단계별 조사가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번 실시했던 건강영향조사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석면피해 고통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인만큼 많은 주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원발성 악성종양, 폐암,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반성 흉막비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생활개선 기술전달 연찬회 '호응'



태안군이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개선 기술전달 연찬회'를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생활개선 기술전달 연찬회는 여성들의 합리적인 생활방식 실천과 지역사회 내 혁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기술전달 연찬회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각 읍·면 생활개선회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

으며, ▲공기정화와 관련한 각종 식물 ▲식물의 정화 원리 및 관리법 ▲건조이끼·자갈·고무나무 등을 활용한 작은 공기정화 정원 만들기 실습교육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막연하게 식물이 공기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식물마다 그 역할이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자치분권대학 아산캠퍼스 수료식 열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2일, 전 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수료자

43명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대학 아산캠퍼스 수료식을 개최했다.

자치분권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주민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7일부터 자치분권 심리, 고전·철학, 정치·경제, 국제·지역, 법학·참여 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수료생은 "자치분권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시민의 관심이 정책을 변화시

키고 내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유병훈 아산부시장은 "자치분권 대학을 수료한 만큼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리더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아산시는 자치분권대학 아산캠퍼스 외에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리량주기자

태안군 청소년 정신건강·생명존중 연극 공연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식 위한 연극 공연 실시



태안군이 청소년의 올바른 정신 건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

섰다.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 정신건강·생명존중 연극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연극은 '각자의 아픔만을 생각하던 가족들이 엄마의 시한부 선고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군은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연극을 관람한 한 학생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족 간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연극을 보면서 나

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강당 공연장 로비에서는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및 홍보 정신건강인식개선 및 자살·우울·스트레스·중독 등에 대한 정신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태안군보건의로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등 록관리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한 여름 달밤러닝 '우리동네 마라톤'

아산시신정호수공원이 한 여름 달밤에 러닝크루들의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방정돌레길 달밤러닝 오픈러닝을 시작으로 7월 신정호길(5km) 달밤러닝 '우리동네 마라톤'을 선보였다.

'우리동네 마라톤' 러닝크루는 오후 8시부터 호수공원 입구에서 출발해 운동단체에 따라 코스 및 구간 운영 등으로 초급자도 쉽게 함께 달릴 수 있다.

김의진 우리동네 마라톤 크루장은 "기록보다는 러닝을 통해 참여

자간의 돈독한 우애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아산평생마라톤' 주간러닝크루는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신정호수공원 관리동 옆에서 출발해 경기코스과 마라톤코스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러닝 참여정보는 아산시보건소 지역보건팀(536-8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달방 러닝코스 등 탐정돌레길, 신정호길, 은행나무길, 도고천변길을 순차적으로 오픈러닝을 할 계획이며 SNS, 캠페인 등으로 러닝을 응원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 실행 첫 발걸음

한국중부발전,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용역 착수 설명회 열려



무더위 날리고 물놀이도 즐기고

부여군, 7월부터 구드래 조각공원 바닥분수 집중 가동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7월부터 구드래 조각공원 일원에 설치한 바닥분수를 집중 운영한다. 구드래 조각공원 바닥분수는 무더운 여름 부여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부터 음악분수 가동(1일 3회)으로 주·야간 구드래 조각공원을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다양한 음악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분수시설은 7~8월 한 여름 동안 바닥분수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부여군을 대표하는 가족친화적 관광·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상수도를 활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자동역세필터와 오존소독 시스템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는 한편, 먹는 물 수질 검사 지정기관에 위탁 검사를 통해 철저히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구드래 조각공원 바닥분수는 7월~8월 두 달 간 10:30부터 17:20까지 20분 운영 후, 10분 휴식으로 운영되며 바닥분수가 운영되는 7월~8월 동안 음악분수 시설은 1일 2회 20:00와 20:30에 음악과 LED조명이 어우러져 운영되어 관광객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김성구기자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계룡시, 유공자 표창·포상금 지급 등 선수단·임원 격려

계룡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및 종합 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계룡시 위상을 높여 준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해단식은 최홍목 시장, 박준엽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계룡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성적보고, 유공자 표창, 우수성적 포상금 지급 등 순으로 진행됐다.

계룡시 선수단은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안군에서 펼쳐진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 165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고 21973점으로 종합 1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적은 지난해 대회에서 개최지 이점으로 10위의 성적을 달성한 것에 버금가는 좋은 결과로, 여러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보여준 나날이 성장하는 체육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최홍목 시장은 "대회 기간 열정을 다해 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메달 획득 유무를 떠나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 및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체육이 곧 복지'라는 신념으로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펼치는데 물질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논산시보건소, 지원 질향·조기진통 지원 기간 확대

논산시보건소(박항순 소장)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및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막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부력증 등 총 11종이다.

이번에 추가 되는 질환은 ▲고혈압 ▲태임신 ▲당뇨병 ▲대상포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며, 조기진통 지원기간 또한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내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로,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지원한도 300만원(의료비,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명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를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34년 전에 폐쇄됐던 서천 동백정해수욕장이 원형 그대로 복원될 전망이다. 특히 서천군은 서천 관광자원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이번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업의 주체인 한국중부발전은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7일 서천건설본부에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 용역 착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 착수설명회는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해양환경조사 계획 및 항목, 사업 시행 예상 영향 및 유지방안 수립, 용역 수행 세부 일정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서천군과 합의되지 않아 진



정성 부여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었으나, 서천군의회는 복원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 서면 주민대책 위원회(위원장 홍성돈)의 조기 착수 요구, 서천군수와 한국중부발전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합의한 바 있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은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 간 체결한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2016년 4

월 4일)의 핵심 지원 사업으로 기존 서천화력발전소 남측을 중심으로 해안선 500m의 해상 생태계 및 동백나무숲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복원하여 서천군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은 지난 2012년도에 중부발전과 서천군이 합의해 추진키로 확정된 사업"이라며, "앞으로 서천군은 2023년까지 복원이 완료되어 서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중부발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완성도 및 실행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팀을 별도로 운영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초석건물지 나왔다

발굴현장 설명회 열려... 초석건물지와 대지조성시설 확인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여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 발굴조사 결과 백제 사비시대 초석건물지와 대규모 대지조성시설을 확인하여 지난 12일 발굴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발굴현장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1-2 일원 부여 화지산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등과 함께 백제 사비기의 중요 유적으로, 예로부터 사비백제의 이궁지로 전해지며 백제의 중요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궁(離宮) : 왕이 정사를 보는 정궁 이외의 곳에 따로 세운 궁궐. 이미 지난 1986년과 2000년도 발굴조사에서 팔각 무릎과 초석 건물지, 백자벼루, 연가 등이 출토되

면서 유적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1년 사적 제425호로 지정되었다.

2015년부터 발굴을 재개하여 2015~2016년 조사에서 초석 건물지 2동, 계단지, 축대와 11점의 나무살이 출토되었고, 2017년 시굴조사에서는 화지산유적의 중심지역이 현재 궁남지와 군수리사지를 바라보고 있는 서사면부일대임을 확인하였다.

*연가(煙家) : 연통에 비나 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번 6차 조사는 화지산유적 서사면부에 대한 발굴조사로 2018년 5차 조사에서 확인한 초석건물지 3동과 연결되는 초석건물지 3동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2018~2019년에 확인된 총 6동의 초석건물지는 모두 축조 방향이 동-서로 일치하며, 원형과 긴사각형, 사각형의 초석을 이용해 쌓았는데, 초석과 초석 사이에는 고평이시설이 확인되었고, 연화문 수막새, 기와 등도 출토되었다. 건물지의 앞쪽과 뒤쪽으로는 배수구를 조성하였으며, 배수구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와 토기가 확인되었다.

*고평이시설 : 기와 건물에 벽체

계룡시 1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도곡리 마 지역주민 관심과 돌봄으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계룡시 치매안심센터(임채희 보건소장)는 지난 12일 도곡리 마을회관에서 최홍목 시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오랫동안 살던 마을에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배려로 존중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센터는 관내 65세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가 가장 많은 읍사면에서 고령인구수와 치매환자 비율, 주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 치매예방·관리가 필요한 읍사면 도곡리 마을을 첫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이날 현판식에 앞서 진행된 치매안심마을 주민 설명회에서는 도곡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 취지, 운영 사업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왔다.

센터는 치매안심마을에 대해 ▲만 60세 이상 주민 치매선별검사 ▲치매바로알기 인식개선교육 ▲치매바로알기 인식개선교육 ▲치매안심교육 ▲치매안



심캠페인 ▲치매안심환경사업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채희 센터장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돌봄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갈색날개매미충 적기 방제 철저 당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끈끈이 트랩 과수농가 배부·성충 방제 지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는 최근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성충이 출현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기방제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줄기, 잎, 과실 등을 흡즙해 반점, 황화, 낙엽화

기습들은 올해 초 관내 과수원 및 주변 91.1ha에 대한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 조사 결과 99% 이상 분포해 있음을 확인하고 성충 출현 이후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은 약충기월동난이 80% 이상 부화한 5월 말 이후를 1차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지도하였다.

또한 성충 출현기 방제를 통한 밀도 감소를 위해 과수 재배 모든 능가(113.3ha, 223 능가에 끈끈이

동 정

간부회의



구분영 천안시장은 15일 오전 8시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

건축추진위원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15일 오후 2시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서천군 신청사 건축추진위원회에 참석

공감회의



박정현 부여군수는 15일 오전 8시 30분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공감회의에 참석.

2019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구분	대상	기간	장소	비고
1회	초·중·고	7월 15일	천안시청	초·중·고 학생 대상
	유·초·중·고	7월 16일	천안시청	유·초·중·고 학생 대상
	유·초·중·고	7월 17일	천안시청	유·초·중·고 학생 대상
2회	초·중·고	7월 22일	천안시청	초·중·고 학생 대상
	유·초·중·고	7월 23일	천안시청	유·초·중·고 학생 대상
	유·초·중·고	7월 24일	천안시청	유·초·중·고 학생 대상
3회	초·중·고	7월 29일	천안시청	초·중·고 학생 대상
	유·초·중·고	7월 30일	천안시청	유·초·중·고 학생 대상
	유·초·중·고	7월 31일	천안시청	유·초·중·고 학생 대상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승)이 올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태조산청소년수련관과 최근 성환읍에 개소한 청다문3호점에서 진행되며, 과학·봉사·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창의력 개발을 위한 과학놀이터와 상상 놀이터는 청다문3호점에서 운영되고, 유관순과 역사탐방, 어사 박문수학교, 독립운동학교 등은 역사시설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나눔전사와 세계적인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흥' 기획단과 단원도 모집한다.

참가 신청방법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cayouth.or.kr)를 참고해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041-566-0179)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을 증진하고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우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통정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은 15일 오전 9시 30분 월송동, 오후 4시 30분 이인면을 방문해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주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15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 현안 보고,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독산리 주민 및 제5602부대 민관군협의체 간담회 참석.

고북면 기관단체 국화시제행사



맹정호 서산시장은 15일 오전 6시 고북 기포교차로에서 열리는 고북면 기관단체 국화시제행사에 참석,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서산시 여항관리청 의회 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국제로타리 3620지구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 오후 6시 30분 르셀에서 열리는 국제라이온스 356-F지구 서산지역 부총재 취임식에 참석한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



문정우 금산군수는 15일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김정섭 시장, 읍면동 방문 핵심키워드는 '주민자치'

“공주형 주민자치 생태계 만들어 나갈 것”

김정섭 공주시장이 2019 하반기 '시민과의 신바람 대화마당'을 통해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금학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자치 방향에 대한 주민 질의에 “공주시 안에서 지방자치를 해보고자 하면 그것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운영하는 주민자치의 실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읍면동에 최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예산도 늘려 읍면동장과 마을 지도자, 주민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마을을 이끌어 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계룡면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민자치가 깊어지고 발전을 발휘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의하는 부분을 시정에 더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각 읍면동 방문길마다



이처럼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이 주인인 신바람 공주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시장방향과 정책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김 시장은 올 상반기 충남도내 최초로 '읍·면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해 주민이 직접 정안면장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시장 살핀 언더 편성도 주민참여 권한을 494건, 41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1년은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로의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바 ‘공주형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고수온피해 대비 양식장 사전점검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연일 무더위가 확산되고 바다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양식수산물 고수온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일 고수온 피해 사전 차단 위해 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설치 등 양식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하면 올 여름은 평년대비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으로 평년 대비 1C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고수온특보도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해양수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고수온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양식 어업인들에게 양식생물 밀집금지 및 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양식장 대처요령을 지도하는 등 고수온 대비 사전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식수산물을 조기에 출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고수온 사전대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차광막, 수중영양분 제거, 액화산소, 액화산소용기 등 고수온 방지 장비 지원을 완료했으며, 기상청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관측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 기상정보를 수시로 체크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은 “고수온과 적조에 대비한 예방 활동과 어업현장지도 등 더욱 강화하고, 적조 발생 시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고수온 우심지역 인 천수만 2개 양식장에서 숨어, 감성등물 2,130천리를 양식하고 있다.

서산=김정민기자

마늘·공주밤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17일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과 양파, 밤 등 지역농산물 생산 농가 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민원실 앞 광장에서 '농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장터는 시청 직원과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는 마늘과 공주 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시는 양파와 감자는 공주 소재 농업법인 제이팜스 및 학교급식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706톤을 수매하기로 해 이번 직거래장터 대상에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농산물 소비촉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라고, 시에서도 농가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금산군-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군민 건강증진 협약 체결

금산군민 할인 등 합리적 의료서비스 혜택 기대



금산군은 지난 11일 오후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력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료혜택 제공과 금산군의 문화, 예술, 관광, 지역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금산인삼축제까지 다양한 홍보지원에 적극 협조코 했다.

주요 협약으로는 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혜택 서비스 할인(10~30%) 및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과 출장 한방강좌 등이다.

특히, 금산군민에 한해 병원 진료료 비급여(약액 항목에는 10% 상시 할인)와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과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협약에 한하여 30%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협약 기점으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공단지, 쌍화탕 등 지정 협약 30% 특별할인 서비스가 진행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양 기관의 상호발전 뿐만 아니라 금산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군민의 건강요구와 관심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문화·경제발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자

서산 도시안전통합센터 시민 안전 '이상무'

절도현장 관제로 신속한 검거에 결정적 역할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경 CCTV로 관제하는 도중, 동부시장 내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한 사람이 영영이 종료된 매장 서너곳 주변을 지속적으로徘徊하고, 주변 인기척을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집중 관제를 실시했고, 잠시 뒤 상자인에서 물품을 꺼내 점퍼안에 숨겨는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를 전달해,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이처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제, 저장하는 CCTV 영상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사건수사와 현장확인용 물론, 도로, 교통, 환경 분야의 행정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소한 이래 절도, 테이트 폭력, 학생 간 폭력, 산불화재 등 400여건의 사건사고 해결은 물론,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분실물 확인, 재산손괴 확인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시간대에 쓰러진 시민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대상자 발견 시 경찰, 소방에 연락을 취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민기자

한내여중길~국도36호선 보령시 도시계획도로 개통

보령시는 한내여중길과 국도 36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동대동 흙골로가 위치한 한내여중 앞 도로부터 지난 2017년 준공된 이편한세상과 동대센터널 파크 도로를 거쳐 국도 36호선을 연결한 것으로, 총연장 1.48km에 도로 폭은 20m이다.

앞서 시는 14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와 인접 주거지역 4000여대의 교통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양방향 2개 차로를 임시 개통했으며, 이번 준공으로 4 차로로 확장돼 출퇴근시간 상습정체 해소와 동대동에서 시내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보령=김태성기자

금산군 '생명사랑 도전! 골든벨' 성료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1일 금산군보건소 한방보건팀 한방건강 대학과 연계한 '생명사랑 도전 골든벨'을 진행했다.

자살예방 생명사랑 골든벨은 기존의 전달식 자살예방교육이 아닌 흥미를 유발하는 퀴즈형식으로 교육 대상자 200여명이 직접 참여했다. 가장 많이 정답을 맞춘 '자작나무반'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됐다.

생명 알뜰이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특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희망기관을 신청 받아 금산군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9월까지 운영된다.

생명사랑 골든벨은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자살예방 인식개선 방법에 새롭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살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예방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따라서 자살과 높은 관련이 있는 우울증 관리 및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올 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보령머드축제의 7가지 매력

보령시, 오는 19~28일까지 진흥의 향연에 흠뻑

보령시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민을 설레게 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10일간 펼쳐지는 진흥의 향연인 보령머드축제의 7가지 매력을 살펴보자.

▲역대 최강의 K-POP 공연

보령머드축제는 한 낮의 태양 아래 신나는 체험시설을 통해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릴 수 있지만, 한 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야간 공연의 열기는 지구촌 최대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한다. 19일 저녁 개막 전야 축하공연에는 박미경과 박구윤, 레이디아, 20일 개막식에는 불꽃판타지쇼와 함께 인순이, 황동운과 대준이, 지원이, 치타가 함께한다.

▲23일에는 여자친구, 틴탑, 워너원 출신의 김재환이 출연하는 머드나잇스탠드가, 27일에는 MBC 쇼음악중심이 펼쳐지는데 NCT DREAM과 러블리즈, 청하, 더보이즈, SF9, 박지훈, 타이거 JK & Bizzy 등이 나서고, 폐막식인 28일에는 노라조와 정미애, 왓와리, BIG, 써드아이 등이 출연한다.

▲시민 참여 거리퍼레이드 및 개막 전야제

축제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격년으로 거리 퍼레이드를 개최하는 가운데 그동안 개막 다음날 낮 시간대 추진하던 거리퍼레이드를 올해는 개막 첫날 평일 저녁에 실시한다. 기존의 거리퍼레이드가 읍면동 단위 경연의 무대였다면 올해부터는 16개 읍면동을 4개 팀으로 묶어 보령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를 표현하고, 보령 문화의

전당부터 동대동 원형로타리까지 약 2.2km 구간을 레이싱카와 대형 캐릭터 발룬, 해외 만국기 퍼포먼스, 대형 에어볼, 풍물단 등과 함께 펼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체험존 프로그램 확대 및 야간 개장

보령머드축제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머드에 흠뻑 빠지고 뽕구는 일상 탈출형 체험에 있다. 대형머드탕과 슬라이드 등 에어바운스 18종의 열기는 지구촌 최대의 콘서트장과 함께 신나게 춤추며 물세례를 받는 머드물신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 또 올해는 낮 시간의 더위를 해소하고 직장인과 학생들을 배려해 7월 25일과 7월 26일 2일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개장을 운영한다.

▲특별한 체험, 머드런과 해양어드벤처

익사이팅(exciting)한 머드 장애물 경기체인인 머드런이 올해는 머드축제 체험존 안으로 이동해 운영된다. 머드범벅의 압박을 동료와 협동하여 올라가면 흔들다리를 만나게 되고 약미의 기둥에서 떨어지면 머드탕에 빠지게 된다. 낮 은 포복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등 10여종으로 구성된 머드런은 에어바운스 중심의 기존 머드 체험과는 달리 장애물 시설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바다 위의 시설물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위더파크는 머드광장 앞 해상에 조성되며, 점프해서 잠수하는 '블롭점프', 긴 미끄럼틀인

'위더 슬라이드' 등을 통해 스틸강 넘치는 속도감과 바다로 뛰어드는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다.

▲숨겨진 매력, 차 없는 거리 및 버스킹 공연

대전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에는 보드게임 '블루마블'과 유머 온라인게임 '모두의 마블'의 콘셉트로 머드테마거리 '머드의 마블' 거리를 조성하고, 시민담 광장과 분수광장 등 3개 지점에서는 음악과 악기, 마임, 마술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에서 가능한 모든 문화예술 공연인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당신의 체험 일상, 유튜브로 올려라

축제기간 체험한 일상을 유튜브로 업로드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상금과 머드화장품이 제공된다. 유튜브와 함께하는 UCC 공모전은 축제기간 가족과 친구, 지인과 함께 체험하는 모습을 동영상과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진 슬라이드쇼 등 90초 이내로 제작해 업로드한 후 보령머드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접수하면 대상은 200만 원, 금상은 100만 원, 은상은 50만 원, 동상은 50만원 상당의 머드화장품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둔 부모도 걱정 끝, 키즈존에서 함께!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원한 그늘막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담광장의 키즈존을 개선하고, 머드슬라이드, 머드버블 등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배치하며, 성인존에서 운영되던 뽕신도 키즈존 앞 해상에 조성되며, 점프해서 잠수하는 '블롭점프', 긴 미끄럼틀인

보령=김정민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 40분)



신다는♥박진우, 이대로 이별 선택하나? 오호장 앞에서 부를까지 짧은 제니. 하지만 오호장마저 현 상황을 외면하자 제니는 결국 만수를 찾아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 25분)

상미는 상원에게 금회를 내보내라 하고, 석호는

원준이 금주와 키스하려는 걸 보게 된다. 한편 준호는 자신을 몰래 찍고 있던 대성을 발견하는데...

검법남녀 시즌2 (MBC 오후 10시 00분)



[Proof of Guilt] 조한수의 맨얼굴이 세상에 공개되고 일대는 혼란에 휩싸인다. 조한수 검거에 성공한 갈대철은 의기양양해하고...

케이블 영화

미이라 2017 (OCN 오후 10시 00분)

신들과 괴물들의 세상, 절대적 존재가 깨어난다! 사막 한 가운데, 고대 이집트 미이라의 무덤을 발견한 닉(톰 크루즈)은 미이라의 관을 수습하던 중 의문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미이라 무덤이 강력한 힘을 갈구한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산 채로 봉인 당해야 했던 아마넛 공주의 것이며, 자신이 부활하게 된 비밀이 이로부터 시작됨을 감지한다.

한편, 수천 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아마넛트는 분노와 파괴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지킬 박사(셀비 크로우)는 닉에게 의심당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건드려선 안 될 강력한 존재와 이에 맞선 무한의 힘, 마침내 세상을 구할 숙명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미이라>는 다크 유니버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절대적 존재, 미이라 아마넛트(소피아 부렐라)를 깨워 의문의 추락 사고를 당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닉(톰 크루즈)이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그녀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다크 액션 블록버스터.



특별수사사형수의 편지 (채널CGV 오후 2시 40분)

"팬스까지 썩 버거 즐겁게" 갑질하는 금수저에게 날리는 통쾌한 한 방!

한때는 모범 경찰, 지금은 잘 나가는 브로커 '필재'(김명민), 풀리지 않는 사건 수임으로 '신이 내린 브로커'로 불리는 그와 브로커 모시며 일하는 변호사 '판수'(성동일)에게 어느 날, 사형수로부터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대해제철 머느리 죽인 놈이네. 이런 사건은 근처에도 가면 안돼"

세간을 뒤흔든 인천의 재벌 '대해제철 머느리 살인사건'의 범인 '순태'(김성호)는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고, 사건 브로커 '필재'는 점점 커지는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직감한다.

권력과 돈으로 살인까지 덮어버린 재벌가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브로커 '필재'와 변호사 '판수' 아재복머가 답답한 속을 뽐! 뿔어뜯 특별수사를 시작한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권력과 돈으로 살인까지 덮어버린 재벌가의 만행을 파헤치는 사건 브로커의 통쾌한 수사극이다.



케이블 & 위성 방송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schedules.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2019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발대전 성료

대전대표 2개 팀 14명 선발 후 전국대회 출정식 개최



대전지역 e스포츠 최강자를 가리는 '2019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발대전'이 지난 13일 한발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산시, 평생학습 재능기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당진교육지원청, 제3회 초등학교 배구대회 개최

학교 배구동아리 활성화 및 꿈나무 발굴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당진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제3회 꿈나무 육성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문의 ▶ KBS 470-7320 ▶ ME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외부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세종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정영관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장애인 시설 및 기관으로 평생학습 문화조성과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모분야는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분야 ▲자격분야 ▲인문·사회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세종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부로 방문 또는 이메일(jhs091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http://www.sjeko.go.kr) 또는 담당자 ☎044-410-1422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태성기자

당진복지관 '여름특강 한마음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당진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현아)은 오는 15일부터 '2019 여름특강 한마음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당진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은 매분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2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충효교실'은 초등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충, 효, 예, 교육과 다도체법, 현장체험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7월 15일(월)부터 전화 및 방문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1~4주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리량주기자



한남대, 2차 입시멘토자문단 61명 위촉 한남대(총장 이덕훈)가 지난 3월 61명의 '입시멘토자문단'을 위촉한데 이어 2차로 자문단 61명을 추가 위촉해 총 122명으로 확대했다. 한남대 이덕훈 총장은 11일 저녁 7시 교내 무어아트홀에서 제2차 입시멘토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유광선 한국평생교육원장 등 61명의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구 유천동 버드내보쌈춤놀이보존회 시연 대전 중구 유천동 버드내보쌈춤놀이보존회(회장 정일양)는 13일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대전방문의 해 기념 대전지역 전통민속놀이 공연에 참가해 보쌈춤놀이 시연을 펼쳤다.



선문대,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촉진 성료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지난 13일,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주제로 2019 충남소프트웨어(SW) 교육 촉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MG한밭새마을금고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한밭새마을금고(이사장 천순상)는 지난 12일 월평2동 월드컵전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밭새마을금고 김남식 전무와 월평2동 이수희 동장과 월드컵전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정유신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평동 독거노년, 노약자 어르신 90여명을 초청, '2019년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개장 아산시가 지난 13일, 신정호 물놀이장 개장식을 갖고, 오는 8월 2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새 단장을 마친 신정호 물놀이장은 유아풀과 물놀이용 조합놀이대, 워터드럼 등 신규 놀이 시설을 추가했으며, 수유실, 의무실, 그늘막, 데크광장 등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영인면, 저소득 어르신 문화체험 행사 추진 아산시 영인면 행복마을 추진단(단장 김명수)은 지난 11일, 저소득 어르신 14분을 모시고 삼교호에 위치한 당진월드아트스카스를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공연 정보와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김현숙 관장·전 직원 및 강사진 '존중과 사랑' 섬김 철학 실천 '노년의 행복동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년사가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 동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評)이다.

노년사 지산동 보건소 옆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은 1층 사무실 헬스실 남녀 사랑방 미용실 탁구실 경로식당 조리실 등으로 꾸며져 있고 2층에는 각 프로그램별 강의실과 서고 3층에는 민방위교육장 및 접견실 방송실이 들어서 있다. 제일 인기 있는 공간은 누가 뭐래도 1층 경로식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시민은 무료, 일반인은 2천원이면 아주 훌륭한 푸짐한 점심을 제공 받는다. 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매일 운영하며 1일 평균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350여명에 달한다.

1층의 미용실은 시중가보다 80% 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머리 손질할 수 있는 외에 건강검진 스탠스스포츠 한걸 품물소리 노래교실 서예, 단전호흡 중국어 사

군자 반 등 총 23개 과정에 43개 반을 운영하는 2층 강의실 등 매일 일일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은 일일 평균 680여명에 달한다.

더욱 19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야간 배움반은 양재 흥래선 밸리댄스 가야금 필라테스요가 생활영어 요가 오커리나 하모니카 사주 명리학 등의 과목을 익힐 수 있는데다 월 수강료는 1만원 [4개월 4만원]에 불과해 이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다 시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일같이 어르신들로 북적거리는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에 대한 피로도도 높을 만도 하지만 김현숙 팀장을 비롯한 10명의 직원과 25명의 강사진은 한결같은 섬김의 자세로 어르신들을 안내하거나 잘 보살피고 있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사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노년의 삶에 활력을 주는 율령우역을 톡톡

히 하고 있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이다. 7월 11일 오전 기자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둘러보면서 들린 2층의 서예반에서는 20여명의 남녀 어르신들이 최경화 지도강사의 체분을 바탕으로 서예 강습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서예에 문외한인 기자의 눈으로 보아도 상당수 서예반 어르신들의 붓놀림은 수준급으로 비쳐졌다.

실제 부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6년째 서예반에서 공부한 최귀석 [84]옹은 한국국전 서예대전에서 특선의 영광을 거머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귀

석 옹은 3년전 농업용 전기시설에 감전된 이후 오른손 놀림이 어렵게 되자 왼손으로 붓을 잡기 시작해서 3년이 경과한 지금은 예전의 오른손으로 쓴 작품 못잖은 실력을 선보여 보논이의 경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일체를 책임지는 김현숙 팀장은 함께 하는 직원들이나 강사들 모두가 사회복지관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방으로 꾸미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노년-김성구기자



대전도시철도 '로봇이 고객안내'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정부청사역에 열차시각, 환승정보 등을 안내하는 인공지능로봇 '디봇'을 배치했다. 지역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 상품을 실증하고 과학도시 대전시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디봇'은 사용자의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서비스로봇으로 역사안내, 노선도, 열차시각표, 출구별 환승정보 등을 제공하고 역무원과 영상통화도 가능하다.

'디봇'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 홍보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열차 도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와 게임도 할 수 있으며 노래, 댄스 공연도 펼칠 수 있다.

로봇의 이름인 '디봇'은 대전도시철도공사 로고인 디엡(DIET)에서 따온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작명했다. 특히 '디봇'은 지난 3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팬스태이션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로봇 '디봇'은 작년 5월 공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지역 7개 IT기업이 '시민체험형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정부청사역 팬스태이션 구축 프로젝트로 뿌리스테이크에서 개발했다.

또한 공사는 고객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로봇이업그레이드됨에 따라 ICT 무한 상상 체험존 ▲AR·VR 체험형 콘텐츠 패밀리 체험관 ▲스마트 영상시스템과 디지털영상콘텐츠제작시스템 운영 ▲3D홀로그래프 로고젝터가 구축된 정부청사역 스테이션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주시니어클럽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사업 참여자 모집

사회복지법인 마곡대표이사 원경순님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공주시니어클럽은 근로의욕이 있거나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재능나눔 활동'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주시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능나눔의 활동분야로는 노인안전예방 20명, 상담안내 20명, 학습지도 20명, 문화활동 20명으로 총 80명을 모집한다.

활동 기간은 모집 시점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월 10시간으로 만근 시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공주시니어클럽 ☎ 041-853-1089으로 방문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시, 제23회 여성대회 성료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11일 서산문화회관에서 '제23회 서산시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운자)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역대 여성지문위원,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서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보건위생물품 지원금 2억원 기탁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지난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생활 영위 위한 지원금 2억 원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건협 재종일 회장, 지역아동센터 박영숙 중앙지원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지원금은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2억 원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형태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승병배기자

아산폴리텍대학, 해외기술봉사 발대식

몽골 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해 국제기술봉사 발대식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장우영)는 12일, 몽골 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해 국제기술봉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설비학과장 김인규 교수를 단장으로 인솔 교수 3명, 학생 18명,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몽골 27번 학교는 몽골 울란바타르 중심가에서 약 20분가량 떨어져 위치하고, 전체학생 2,950명, 교사 111명, 학교 관계자 45명이 재직하고 있다. 1976년 몽골 군인병원 숙

사로 사용하던 곳을 교실3개의 학교로 설립하고, 27번 학교는 한 학교가 아닌 동일 행정구역내 3개소의 학교를 통칭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몽골 해외봉사단은 아산캠퍼스 7개 학과가 참여하여 강의실 보수작업과 도색, 학교의 열악한 난방과 배관시설 정비, GPS태양광 시계설치 등의 교육환경시설 개선과 학생들과 연계한 전자, 자동화, 전기, 기계, 용접, 설비, 영상촬영·편집 등의 기술지도와 학용품 및 체육용품 등을 기증하고 올 예정이다.

몽골 해외봉사단은 아산캠퍼스 7개 학과가 참여하여 강의실 보수작업과 도색, 학교의 열악한 난방과 배관시설 정비, GPS태양광 시계설치 등의 교육환경시설 개선과 학생들과 연계한 전자, 자동화, 전기, 기계, 용접, 설비, 영상촬영·편집 등의 기술지도와 학용품 및 체육용품 등을 기증하고 올 예정이다.

다양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진해협의 노동조합과 임직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노사합동으로 이루어졌다.

당진=최근수기자

“지역 관광지, 우리 손으로 가꾸요”

당진화력본부, 노사합동 왜목 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당진=최근수기자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운옥)는 지난 11일 왜목 마을 해수욕장에서 노사합동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대투 논단

‘국민(國民)’이 ‘공민(僑民)’ 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김현태 논설고문

어학사전에 공민(僑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데 공민이란 단어가 있다. 그것은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을 일컫는다. ‘국기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국민(國民)인데 발음도 광고업계도 ‘공민’이다. 그러니까 국민(國民)과 공민(僑民)은 같은 발음선상에 있지만 그 의미만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한 사람’을 세공민(細窮民)이라 하고 ‘세 당민’이라고 발음한다.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흥년에 공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마련한 비상미저축제도가 바로 ‘의창(義倉)’이다. 여기에 공민이 등장한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 때 이자를 붙여 거둬들이는 빈민구제 기관이었다. 평년에는 백성으로부터 곡류(穀類)를 여분(餘分)으로 징수하거나 유지(有志)로부터 기부를 받아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倉庫)이다. 수(隨)나라 때 시작되어 당(唐), 송(宋), 청(淸) 때에도 널리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태조(太祖)가 설치한 ‘흑창(黑倉)’을 고려(高麗) 성종 5년에 ‘의창’으로 개칭(改稱)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16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공민(僑民)이 된 국민(國民)을 위한 빈민구제기관으로 사실상 오늘날 복지제도와 국민연금을 연상시킨다. 하하튼 역사적으로 공민문제는 나라의 큰 구휼(救恤)의 문제였다. 즉 백성들이 흉년 등으로 곡식이 떨어지거나 가혹한 형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여 구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치 춘궁기(春窮期)를 맞은 듯하다. 일 본의 수출규제, 최저임금 문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많은 혼돈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좌충우돌로 몰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약해진 한국경제의 대표적 요인인 하나로 지목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났다. 살펴보면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 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12일 정부제청사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정이다.

내용을 보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인상 시간 당 8,590원이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5명의 표를 받았다. 근로위원이 제시한 8,880원(6.3%)은 11표를 받았고,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을 주장하는 노동계는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해소는 완전 자릿구조가 되었다고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조려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보고한다.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런 결정을 불리치면 그동안 1만 원대를 향해 향하던 최저임금이 경제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인상이 아니었느냐 하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데도 돈을 주려는 것은 경제논리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고 이른바 모순경제, 억지경제에 다름이 아니라 지적이 강하다. 그러나 이에 일부생 조차 고충하지 않고 가족들이 나서고 영업시간마저 줄여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른바이트 일자리는 과거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오죽하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면서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걱정해야 했는지들 생각해 보아야 한다. 240원 2.87%는 지난 해 10.9%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크게 꺾인 것으로 엄혹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시 키우고 추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 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저런 경제여건이 생각보다 살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조차 우리나라 목표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2.5%로 낮추고 있고 해외투자은행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물론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둔화에 기준금리인하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또 다시 2.5%에서

2.3~2.4%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하튼 정부나 경제전문가들도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하여 부정적 메시지로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대립과 충돌이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심각 이상이다. 삼성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사태이다. 잘 나가던 삼성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하다. 재벌 총수들이 일본을 향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장단기 대책이라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메아리처럼 들린다. 기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대립과 충돌이 맞은 이 번 사태는 결코 간단히 잊어 보인다. 새우등 터지는 대립양상이 살벌하다.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을 뺏아들고 수출규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본을 찾아가고 미국을 찾아가도 그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요 부품들의 일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까지도 그렇다. 그런데 이 정도 일 줄이야 정말 몰랐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일본의 소재수출규제에 막을 못 출 정도였다고 생각하니 국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 심지어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도 그동안 무사안일한 자세로 반도체산업이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한 시고 눈앞에 이득만을 챙기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길을 도매체 왜 고민해 왔는지들 묻고 싶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다. 만약 앞으로 일본이 소재부품을 계속 대 주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반도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허약한 체질로 어떻게 세계적 인 기업이 되었는지들 이해할 수가 없다.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들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에 내놓아도 대기업들은 못방귀도 안 똥다는 말은 이미 업계에서도 파다하다. 세계적인 것을 제인해도 그렇다. 이런 풍토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눈치만 보며 늘 할렷거리며 달려왔다. 지금도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줘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도 팽배하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이는 잠정실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회성 수익

을 빼면 5조원 증반으로 실적은 1분기에 이어 ‘실업음판’이라는 것이다. 수익성 부진상태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반도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자명하다. 대안부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기다리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품의 핵심이 타격을 입는다면 과연 그 길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뜰스나 서민경제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출경제의 기둥이 흔들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있으니 이러다가 일본 발 제 2의 IMF체제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시중에서는 불안시리가 작동하고 있다.

반일 감정을 내세우며 대책없이 대립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도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무슨 일을 갑을 뺏아들고 수출규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본을 찾아가고 미국을 찾아가도 그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요 부품들의 일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까지도 그렇다. 그런데 이 정도 일 줄이야 정말 몰랐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일본의 소재수출규제에 막을 못 출 정도였다고 생각하니 국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 심지어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도 그동안 무사안일한 자세로 반도체산업이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한 시고 눈앞에 이득만을 챙기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길을 도매체 왜 고민해 왔는지들 묻고 싶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다. 만약 앞으로 일본이 소재부품을 계속 대 주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반도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허약한 체질로 어떻게 세계적 인 기업이 되었는지들 이해할 수가 없다.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치 춘궁기(春窮期)를 맞은 듯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최저임금 문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많은 혼돈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좌충우돌로 몰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약해진 한국경제의 대표적 요인인 하나로 지목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났다. 살펴보면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 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12일 정부제청사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정이다. 내용을 보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인상 시간 당 8,590원이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5명의 표를 받았다. 근로위원이 제시한 8,880원(6.3%)은 11표를 받았고,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을 주장하는 노동계는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해소는 완전 자릿구조가 되었다고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조려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보고한다.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사 설

특정국가의존형 산업구조 틀 깨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사실상 비상체제 준비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내 30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한데 이어 강경화 외교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도 미국을 전격 방문하는 등 외교적 차원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폐요구와 대응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일본은 아베총리는 물론이고 언론들까지도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 검토’ 운운하며 일본정부의 한국 압박수위 높이기 동조하고 있다. 이제는 거의 가짜 뉴스수준인 사리기사까지 들먹일 정도다. 이에 맞서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될 만큼 국민의 반일정서 역시 확산되고 있다.

한일간 마찰은 결국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천적 구속력이 없지 만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할 것도 이같은

조치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남을 알려 국제적 인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건 당장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방안 과 사태의 장기화, 되풀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부품이나 소재, 장비 의 국산화를 높이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국가의존형 산업구조 틀을 깨지 않으면 연 제든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무역을 통한 보 복에 무방비사태로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민관의 협력체제구축과 산업구 조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한국경제 체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마련이 절실하다. 일본에 대한 비난이전에 이런 사태 발생에 한국의 세계 1등 기업들이 속 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허술한 산업구조 틀 방지한데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일본과의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700 조원이 넘어 강대국 대치는 일본에도 큰 피해 가 될 것인 막연한 이유로 사태를 낙관해선 안 된다. 민관정 모두가 한 뜻으로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심각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통제 하기 힘든 중독 청소년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근단증상이나 일상생활의 어려 움 및 충동 조절장애 등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없이 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무의식적으로 들여다보 는 등 이상을 소리 없이 멍하게 하고 학업성취 도 저하와 직결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거 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느라 신호등도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는 위험한 모습이 흔하 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심지어는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의 게임에 빠진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수업 시간 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청소년기 시기는 뇌 발달의 황금기에 해당하 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스마트폰을 가능한 멀리하고 주위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감성과 지성을 폭넓게 발달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스마트폰보다는 활동적으로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일상 행동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 다. 더 이상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사용규제를 가정과 학교에만 맡길 일이 아니 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마트폰 확산 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 가 나서야 할 때다.



대전우체국, 「초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봉사활동
대전우체국은 지난 12일 동구행복한 어르신복지관에서 「초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400여명의 지역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양식인 삼계탕을 대접했다. 최원봉 국장은 “지역어르신들께서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야외 근로자 찾아가는 이동쉼터 운영

대전시, 환경부의 19년 폭염대응 취약계층지원 시범사업 선정

대전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폭염대응 취약계층지원(야외 근로자 대상)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의 2019년 폭염대응 취약계층 지원 시범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 활동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적응력 강화와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

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차량용 트레일러 구조물에 냉난방, 세면 등이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작, 운영되는 트레일러 이동쉼터를 공공관리사업소와 하천관리사업소에 각각 설치·운영할 계획 이다. 이동쉼터에서는 공인시설물 관리 원과 3대 하천 조정·정소·광중화

장실 관리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또한, 이동식 그늘막 쉼터는 기능성 천막과 휴대용 냉방기를 활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한발수목원에서 제초, 병충해 방제, 꽃 심기 야외 근로자가 이용하는데 편리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시원한 쉼터’는 8월 중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후 인 수절차를 거쳐 설치·운영될 예정 이다.

대전시 순철용 환경복지국장은 “폭염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찾아가는 무더위 이동쉼터 시범사업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공공부문 야외 근로자의 안전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며 “이번 공공부문 시범사업 결과로 토대로 시 산하 사업소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이 민간 부문에까지 파급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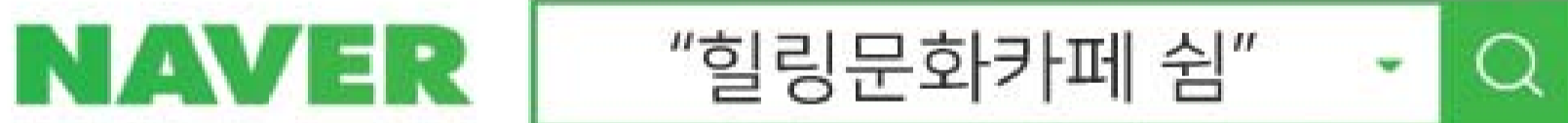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론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인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 이색카페 | 상담카페
 당신을 위한 진정한 힐링



성향검사, 적성검사 만나보세요!



예약문의



070.8804.1234



@cafeshuim



대전 중구 중앙로 170번길 28, 3층
은행동 와와돈 3층



월화목금 10:00 ~ 22:00
 일요일 15:00 ~ 22:00
 수요일 : 휴무